



ISSN 1599-7863

2013년 봄 41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박물관
사람들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

국보 101호,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높이 6.1m, 화강암

지광국사의 사리를 모신 승탑이다. 고려 선종 2년(1085)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Contents

기획 | 고려

04 고려시대 가족형태

07 염홍방, 개혁과 부패 사이

12 찬란한 불교문화
-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

15 또 하나의 신앙, 도교

전시실 산책

18 흐름을 읽다

회원마당

22 휴스턴에서 한국 미술을 만나다

24 이상향을 꿈꾸며

학술상

27 백제 정립사식가람배치의
전개와 일본의 초기사원

박물관회 소식

32 2013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계획

33 WFFM 소식

34 박물관 후원하기

35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책을 만들면서..

‘춘은 보다’에서 왔는데
보고 또 보면 봄이 또 오겠지?...(水)

꽃그늘 아래서
단잠을 잤다.
들숨과 날숨사이
봄날은 가는구나...(河)

한 여름밤 꿈처럼
십년 세월 지나버렸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다.
또다른 시작을 기대하면서...(愛)

사계절이 아홉번, 서른여섯권
내 손길과 마음을 담았다.
이젠 한발짝 물러나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아야지...(리)

회지 바라기 10년째
고놈들, 갈수록 더 예뻐진다.
담담하게 봐줘야겠지
모두 안녕, 그리고 땡큐!!...(정)

한판 흐드러지게 놀다 보니
또다른 길 위에 섰네
잠시 숨을 고르고
또다른 시간
순리대로 살자 자연스럽게...(藝)

아쉬움에
주먹을 꼭 쥐기 보다는
활짝 손바닥을 펼치자
좋은 인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眞)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13년 봄 41호

박물관회
사랑들

회지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 2013년 3월 15일

발행처 | 국립중앙박물관회

발행인 | 김정태

기획 | 신병찬

편집위원 | 정미희·정혜리·조애경·최예정·하영남

진행 | 윤혜진

발행처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전화 | (02)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fnmk.org



01

고려시대 가족형태

글 박종기·국민대학교 교수

고려인 박유의 기발한 인구 증가책

고려 충렬왕 때(1274-1308년 재위) 관료 朴楡라는 사람은 임금에게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렸다.

“우리나라는 음양오행의 원리상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인을 한 사람만 두게 하고, 자식이 없어도 축첩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부인을 마음대로 얻어, 낳은 자식들을 모두 자기나라로 데려가면 인구가 더욱 줄어들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관리들의 품계에 따라 부인의 숫자를 정하게 하고, 서민은 1처 1첩만 두게 합시다. 첩에게 낳은 자식도 본처의 자식과 같이 벼슬을 하게 하면, 인구가 증가할 것입니다.”(『고려사』 권102 박유 열전)

박유의 상소를 통해 13세기 후반 당시 고려에서 인구 감소현상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마치 요즘의 우리 현실과 비슷하다. 높은 교육비와 양육비, 거기에도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부족한 보육시설로 결혼 인구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인구가 감소한 요즘과 달리, 부인의 숫자가 부족한 음양의 원리 때문에 고려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박유의 설명은 이채롭다.

또한 외국인들은 여러 명의 첩을 두어 많은 자식을 낳기 때문에, 고려 인구가 유출된다는 생각도 흥미롭다. 박유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부인의 숫자를 늘리자는 놀라운 해법(?)을 제시한다. 아마도 요즘 호색의 남성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일 뉴스거리다. 이 일로 인해 박유는 길거리에서 여인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가 되었고, 당시 사나운 부인을 둔 재상 때문에 그의 제안은 유아무야 되었다고 한다. 여인네들의 시샘이나, 부인네들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베갯머리송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 없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얘기다.

일부일처제의 가족 제도

여기서 여인네들이 박유에게 손가락질을 한 사실을 통해 고려의 가족제도가 일부일처제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려 사람들이 남긴 묘지명에 기록된 가족관계를 조사해보니, 가족형태는 부부와 3-4명의 자녀를 둔 單婚 소가족 형태라고 한다. 고려 전기 이래로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요즘의 ‘핵가족’ 형태와 유사하다.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변하지 않은 제도와 관습은 장례와 혼인 풍습이다. 고려왕조 역시 건국된 지 3백년이 지난 충렬왕 때까지도 이러한 혼인법칙이 고수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달리 조선시대의 경우 평균 자녀는 5~6명으로 고려 때보다 큰 규모는 아니나, 한 가족 내에서 4세대 혹은 3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가 많았다. 그러나 가호 단위별로 볼 때 6인 이상, 많을 경우 21인 이상의 가족을 거느린 가호가 전체의 64퍼센트를 차지했다. 고려와 달리 조선시대 가족 형태는 대가족 내지 확대가족 형태였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제사를 지내는 장남인 맏이에게 재산 상속의 우선권과 함께 많은 재산이 상속이 되었다. 적은 재산을 상속받은 나머지 형제들은 자연히 장남에게 의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가족 형태가 유지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제사를 지낼 남자를 출생하려는 남아선호 사상 등이 가족규모와 형태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혼인 형태와 상속 제도

고려시대 가족 형태나 규모가 일부일처제의 단혼 소가족인 원인은 혼인 및 상속제도와 관련이 있다. 먼저, 혼인 형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인의 혼인 형태는 壻留婦家婚이다. 글자 그대로 사위가 부인의 집에 머무르는 형태인데, 달리 男歸女家婚이라 한다. 남자가 혼인 후 낳은 자식이 장성할 때까지 여자의 집에서 거주하는 혼인형태라는 뜻이다. 고려 중기 大文章家 이규보는 장인의 제문을 쓰면서 “사위가 되어 밥 한 끼와 물 한 모금을 다 장인에게 의지했다.”고 했다. 이같이 이규보도 결혼 후 장인의 집에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상속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제도는 앞에서 언급한 혼인 형태와 관련이 있다. 낳은 자식이 장성할 때까지 남자가 여자의 집에서 머물게 된 것은 여자의 경제력과 관련이 있다. 요즘 가장 중요한 상속 대상은 토지나 아파트 주택과 같은 부동산이다. 고려의 경우 상속의 주요한 대상은 노비와 토지다. 노비는 사람이라 동산같이 여겨지나, 당시 인격이 없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다. 노비와 토지 모두 아들 딸 가리지 않고, 동일한 액수로 균등하게 상속하는 男女均分 상속이 당시의 제도였다.

조선시대와 같이 제사를 지내는 맏이에게 상속이 집중되면, 재산 상속이 적은 나머지 여러 형제들은 맏이를 중심으로 한 집안에서 동거하는 경향이 나타나, 가족 형태도 부계 중심의 대가족 형태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남녀균분 상속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형제에게 재산이 균등하게 상속된다. 자연히 재산을 상속받은 형제들은 다른 형제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독립된 가계를 이루게 된다. 이같이 고려의 상속제도가 단혼 소가족의 가족형태를 낳은 원인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고려의 경우 조상에 대한 제사도 조선시대와 같이 맏이인 장남이 독점하지 않았다. 여성도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물론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제사를 주관했겠지만, 아들이 없으면 딸들이 대신 제사를 지냈다. 남아 선호현상이 고려에서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되는데, 이러한 제사 형태를 남녀가 번갈아 제사를 지낸다는 뜻에서 남녀 輪行奉祀라 한다. 이같이 고려시대 재산 상속과 혼인 형태가 일부일처제에 기반 한 단혼 소가족제도가 유지된 원인이 되었다.



02



03

고려 때 이러한 제도 때문에 나타난 또 하나의 변화는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부터 호적법이 개정되어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의 골자는 출생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관을 따른다는 父姓주의 원칙이 수정되어, 혼인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관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자녀의 성과 본관도 부모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호주제도도 폐지되어 가족 개인마다 가족관계 등록부를 갖는 ‘1인1籍’ 형태로 바뀌었다. 비로소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이혼한 여성이 호주가 되면, 전남편 자식의 성씨를 현재의 남편이나 자신의 성씨로 고칠 수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이제 여성이 당당하게 재산 및 가계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새 법이 시행, 정착되어 갈수록 가족제도나 상속제도 역시 앞으로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이 호주가 되다

놀라운 것은 이미 고려 때에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상속재산을 표기할 때 노비의 경우 그 소유주를 어머니 쪽 아버지 쪽으로 구분하고 있다. 어머니가 혼인할 때 부모로 상속받은 재산은 혼인 후에도 자기 재산으로 유지되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산이 독립되어 자식들에게 각각 상속되었다는 뜻이다. 현대판 상속제도보다 더 선진적인 제도가 이미 천 년 전 고려 때 시행되었던 것이다. 조선 후기 족보에는 딸의 이름은 생략되고 대신 사위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 남성 위주의 기록관행이다. 요즘과 같이 ‘뗏남뗏녀’식으로 남자를 앞세워 자녀 숫자를 표시하는 관행도 이러한 관행의 유제일 것이다. 그러나 고려의 경우 자녀를 기록할 때 남자와 여자의 구분 없이 출생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역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재산을 상속받고, 남녀 구분 없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부모와 조상의 제사를 지냈던 고려사회의 관습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고려시대에 고위관료나 공이 있는 관료의 자손에게 관직 진출의 특혜를 베푸는 음서제도가 시행되었다. 아들이 없는 관료의 경우 딸의 자손, 즉 외손이 이 제도에 따라 관직 진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여성이 재산상속·호주·제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고려시대 가족제도, 혼인제도, 상속제도 등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며, 오늘날 우리들이 본받고 참고하여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 🌿

01. 이승장 묘지명, 83.8×39.9×4.2cm, 고려 1193(명종 23년), 국립중앙박물관

02. 「秘康學琴, 故事文鏡, 지름 13.1cm, 국립중앙박물관

03. 多紐遊戲文鏡, 지름 21.5cm, 국립중앙박물관



염흥방, 개혁과 부패 사이

글 도현철·연세대학교 교수

염흥방은 곡성부원군 염제신의 3남 5녀 가운데 차남으로, 자는 東亭, 호는 漁隱이다. 어머니는 세족인 권한공의 딸이다. 부친인 염제신은 공민왕대 문하시중을 역임하였고 여동생은 공민왕의 비(愼妃)가 되었다. 이처럼 서원(파주) 염씨는 정당문학을 지낸 염승약의 후손 집안으로 왕비를 배출하고 재상이 나온 세가대족이었다.

— 염흥방은 부친인 염제신과 더불어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추진하는데 일조한다. 염제신은 공민왕 5년 기철 일파를 제거하고 원나라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북면도원수가 되었으며, 3개항에 걸친 국방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반원개혁을 뒷받침한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한 것으로, 군인의 확보·둔전의 확대·역제의 재정비 등이 주 내용이었다. 염흥방은 공민왕 6년 이인복과 김희조 문하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과거의 시험 과목이 四書疑와 六經義였으므로, 주자학의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 「주자사서집주」를 익혔음을 알 수 있다.

— 염흥방은 교육·과거제도의 활성화와 성리학 진흥에 노력하였다. 공민왕은 성균관을 승문관의 옛터에 증건하였는데, 염흥방은 이 일을 주관하면서 문신들에게 관품에 따라서 포를 내게 하였다. 전교량 윤상발이 옷을 팔아 포 50단을 마련하여 그 비용에 보태자 염흥방이 이를 구실로 열흘 만에 1만단을 거뒀다고 한다. 당시 성균관에는 이색·정몽주 등이 참여하고 있었고, 성리학에 입각하여 세계와 인간을 새롭게 이해하는 동시에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져나갔다. 염흥방은 이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을 연구하고 장차 고려를 이끌 인재들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 염홍방을 포함하여 성균관에서 공부한 이들은 복원 사신 영접 문제와 관련하여 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인임 등은 복원이 고려에 보낸 사신을 영접하고자 하였으나, 정도전·염홍방 등은 이에 반대하였다. 이인임이 이를 무시하고 정도전으로 하여금 원 사신을 맞이하게 하자, 정도전은 원 사신을 죽이거나 명으로 압송하겠다고 반발하였다. 이에 이인임은 염홍방 등 반대자를 처벌하였다. 진록생과 박상충은 유배도중에 죽었고, 염홍방은 정몽주 등과 더불어 유배당했다. 당시 염홍방은 나주로 귀양가는 정도전에게 ‘이인임의 노기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잠시 늦추고 기다리라’고 하여 정도전을 염려하는 자신의 애뜻한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 정도전은 나주의 유배지에서 염홍방이 쓴 陶詩後序를 읽고 讀東亭陶詩後序를 지었다. 이는 두 사람 다 도연명의 안빈낙도하며 절개 있는 행동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염홍방은 도연명이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렸던 것은 관직을 가지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고, 술로 날을 보낸 것은 고국에 대한 고절한 마음 때문이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도연명의 심성은 지극히 순수하고 지극히 선한 天理의 모습으로 사물을 대할 때마다 즐겁고 마땅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마음과 행적 모두가 도에 합당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염홍방은 도연명을 시인의 경계를 넘어서 성현으로 존송하였는데, 정도전 또한 그런 염홍방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연결시켜 마음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이처럼 유배를 떠난 상황에서 이들은 도연명을 공통의 주제로 떠올리며 정서적 안정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 이색 역시 복원 사신의 영접에 반대하다 천녕현(후에 경기도 여주에 속함)에 유배되었다 돌아온 염홍방과 성리학 적 의식을 공유하였다. 이색은 염홍방이 유배지에서 자호한 어은이라는 호와 枕流亭이라는 정자의 기문을 써주었다. 『어은기』에서 이색은 염홍방이 ‘옛 것을 좋아하고 자기의 몸을 단속하며, 참된 마음을 보존하고 다른 사람을 아끼며, 가렴주구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개·돼지만도 못하게 여기고, 물고기나 자라까지도 덕화를 입도록 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고 하였다. 이색은 염홍방이 修己에 힘쓰고 백성을 위하는 인물로 보았던 것이다. 또한 『침류정기』에서는 ‘염홍방은 환경이 바뀌면 이에 맞춰 적응을 하며, 그 식견이 당대의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부귀한 환경에 처하면 부귀한 상황에 맞게 처신하고, 환란을 당하게 되면 또한 그러한 상황에 맞게 처신을 하니, 이는 자득한 경지가 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색은 염홍방이 隨時自適할 줄 아는 우뚝한 인물로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우왕 말년 가렴주구를 일삼는다고 염홍방을 비판한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 복원 사신의 영접에 반대하여 유배를 떠난 염홍방은 우왕 2년 무렵 복귀하고, 우왕 6년에 지공거가 되었다. 염홍방은 3번의 과거시험을 주관하며 많은 인물을 선발하였다. 그는 과거제를 존중하고 과거제의 공적인 운영을 지향하였다. 과거 시험의 지공거이었던 염홍방은 자신과 공민왕 2년 진사와 동년으로 과거에 응시한 홍민구를 떨어뜨렸다. ‘염홍방은 많은 사람을 자기 문하에 두고 싶어 동년도 문생으로 삼으려고 할 것’이라는 예상과 ‘44세의 자신을 가련하게 여겨 이번에는 합격시킬 것’이라는 홍민구의 바램과는 정반대의 결과였다. 이는 염홍방이 오직 공도에 입각한 공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였다.

— 우왕 초반기 정국은 이인임과 최영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인임은 최영을 견제하기 위하여 임견미를 등용한다. 이인임은 최영과 정국을 주도하면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왜구 방비를 위해 개경을 떠나 충주나 철원으로 천도하자는 이인임의 주장에 대하여 최영은 개경을 굳게 지켜야한다고 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불법적으로 양민을 사역시키고 토전을 광점한 마경수를 가볍게 처리하려는 이인임에 대하여 최영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최영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이는 최영이 물리적 기반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이에 이인임은 최영의 군사력을 견제하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무장 세력을 포섭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임견미와 조민수를 주목하였다. 임견미는 공민왕대에 홍건적 침입을 막고 홍왕사의 난을 처리하였으며, 우왕대에는 왜구 방비에 공을 세웠지만 중요 관직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정치적 실권자로서의 도약을 꾀하는 과정에서 무장 세력과 결합하려는 이인임의 의도와 맞아 떨어져 이인임과 혼인 관계를 맺는다. 임견미는 이인임의 열자인 이현을 사위로 맞아들여 집권 권력자와 긴밀하게 결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염홍방은 권력의 핵심부에 다가간다. 그는 우왕 초년의 유배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권력의 특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였다.

이인임은 오랫동안 나라의 권세를 도둑질하여 당의 뿌리를 유지하였다. 임견미는 그의 심복이 되어 문신들을 미워하고 내쫓았는데 그 수가 매우 많았다. 염홍방도 또한 쫓겨난 사람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 후에 임견미가 염홍방이 세가대족이므로 혼인 하기를 청하니 염홍방 역시 전일 유배당하고 무시당했던 것을 억누르고 일신을 보존하고자 오직 이인임과 임견미의 말이 옳다고 추종하였다.

이현을 사위로 맞아들인 임견미는 성리학자이며 유력 가문 출신인 염홍방과도 혼인 관계를 맺는다. 임견미는 이인임과 함께 경복궁과 그 일당을 숙청하여 권력을 장악하는데 성공하고, 염홍방 가문과의 혼인관계를 통하여 그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염홍방 역시 우왕 원년 유배당한 것을 경계하여 일신을 보존하고자 권력자와 밀착하였다. 우왕 7년 정월 무렵 염홍방은 자신의 딸을 임견미의 아들인 임치와 혼인시키고, 이인임·임견미와 연합하여 정국 운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인임·임견미와 연합한 염홍방은 권력을 좌우하면서 권문적 기반의 확대에 주력했다. 염홍방은 우현보와 함께 나라 일을 전결하면서 모두 구두로 처리하고, 우왕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그는 이인임과 임견미의 말을 추종하는 한편 이성립을 시중으로 삼아 권력을 전횡하였다. 우왕 14년 2월 염홍방이 죽자 이성계는 임견미와 염홍방이 권력을 잡은 지 오래되어 사대부들은 모두 그들이 임용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하고 그들을 숙청하였다. 이때 제거된 관료는 50여명이 넘었고, 이는 고려와 조선의 왕조 교체 때의 관료 변화 폭보다 큰 것이라고 한다. 염홍방의 달라진 행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인물은 이색이다. 이색은 염홍방과 인친이면서 염홍방의 부친인 염제신을 어른으로 모셨다. 염제신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와 신도비를 지었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시 짓기를 중지하였으며, 염홍방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와 장례식에 참석하고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색은 일찍부터 염홍방·한수·이강과 교유하였다. 공민왕 17년 이강이 36세로 죽자 세 사람이 모여 “이제 우리 벗이 죽었으니, 여찌 명문을 남기지 않으리오.” 하고는 이색이 묘지명을 짓고 한수가 글씨를 쓰고 염홍방이 글을 새겼다. 실무 총괄은 염홍방과 한수가 맡았다. 공민왕 16년에 성리학이 진흥될 때, 두 사람은 뜻을 같이 하고 성리학적 의식을 공유하였다. 우왕 원년 북원 사신의 영접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색은 『어은기』나 『침류정기』를 통해 그를 높이 평가하였고, 시를 쓰며 정감을 나누었다. 이색과 염홍방은 각기 3번이나 과거의 시관을 맡아, 용두회·동년회·사촌회 등의 잦은 만남을 갖고 정분을 쌓고 있었다. 공민왕과 인척의 ㄹ祭·꽃구경을 통해서 시문을 주고받고 회포를 풀며 정분을 나누고 있었다. 또한 이색은 염홍방으로부터 경제적·물질적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정치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염홍방은 학문적 위상이 높고 정치적으로 신망이 있던 이색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려 하지 않았다. 당시 이색은 정치적·학문적 비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었다. 우왕 5년부터 서연 강의를 맡았지만 정치적 실권은 없었다. 명 황제가 보낸 사신인 장부 등이 국경에 도착하여 이색의 안부를 묻자, 우왕은 이색을 판삼사사로 삼아 명 황제의 조칙을 받게 하였지만, 본격적인 정치 참여는 실현되지 않았다.

당시의 관료들을 이색과 최영 등 고려의 정통 관리로서 청렴과 지조를 중시하는 부류와 부패를 상징하는 부류로 나누다면 염홍방은 후자에 속한다. 우왕대 유배 생활을 겪으면서 권력의 힘을 알게 되었으며, 아버지 염제신이 죽고 난 후 성리학자로서의 지향점이나 목표는 희미해져 갔다.





현실의 역학 관계나 세력에 의하여 정치 활동을 전개하고, 고려 왕조의 건설한 체제 안정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 시험의 부정행위나 토지탈점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비리의 온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색은 염홍방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목은집』 시고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던 염홍방에 대한 시는 우왕 9년 무렵부터는 자취를 감춘다. 우왕 12년 이색은 지공거가 되어 염홍방과 함께 과거를 주관하였는데, 판문하부사 조민수가 동지공거 염홍방을 통하여 불합격한 아들을 합격시키고자 청하였으나 거절하였다. 우왕 13년에 이색은 '이성립은 누추한 집안에서 성장하여 재상이 되자 전민을 광점하고 한꺼번에 집 세 채를 지었고, 염홍방 역시 수탈을 일삼으니 나라를 잘못되게 한 자는 이 두 사람'이라고 비판하였다. 염홍방을 부정행위 인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색은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염홍방과 절연한 것으로 보인다.

우왕대 후반기가 되면 이인임·임견미·염홍방의 정치 운영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군사력을 장악한 최영의 거부감 때문이었다. 최영은 누구보다도 부정부패를 싫어하고 특히 이인임·임견미·염홍방의 불법적인 치부 행위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우왕 10년에 최영은 왜적 방비 등 많은 공로로 받은 토지를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받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양곡 200석을 내어 군량에 보충케 하였다. 도당에 나아가서 여러 재상들이 백성의 전토를 침탈하고 검병하는 폐해를 지적하고 이를 금하는 禁約을 만들어 함께 서명하자고 제의하였다. 당시 임견미와 염홍방의 불법적인 재산 증식과 매관매직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다.

지문하사 안경을 진봉사로 삼아 명에 파견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염홍방은 안경의 뇌물을 받고 전문하평리 홍상재로 교체하였다. 배원룡은 평소에 유능한 관리로 칭송을 받았지만, 염홍방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그를 養父로 모시고 집을 선물하여 계림부윤이 되어서는 백성의 재물을 긁어모았는데 쇠스랑까지 빼앗아 신고 갔으므로 마을사람들이 '철문어 부윤'이라고 불렀다. 권력을 전횡하며 관작을 팔고, 다른 사람의 전토를 빼앗으며, 산야를 차지하고, 남의 노비를 빼앗은 것이千百이나 되었다. 우왕 8년 9월 한양으로 천도할 때 이인임과 우왕의 장인인 이림 및 임견미·염홍방·도길부·이존성 등이 호종하였는데, 그들은 각기 수종자들을 보내 물푸레나무로 매질하여 백성들의 땅과 집을 빼앗았다.

최영은 청렴 정직하였고 이인임·임견미·염홍방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우왕 역시 이들의 폐해를 잘 알고 있었다. 우왕 13년 2월에 이인임·임견미·염홍방 등이 국용과 왕실 재정을 위한 토지까지 검병하자, 도당으로 하여금 국가와 왕실의 토지나 그에 속한 노비 및 일반 백성을 침탈한 사람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해 12월 염홍방의 가노 이광이 염홍방의 권력을 믿고, 불법적으로 조반의 토지를 빼앗았다. 조반이 염홍방에게 청하여 땅을 돌려받았으나, 이광이 다시 토지를 빼앗고 능욕하자, 조반이 견디지 못하고 이광을 죽였다. 소식을 들은 염홍방은 격분하여 조반

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여 조반의 모와 처를 잡아 국문하였다. 하지만 조반은 불복하고 6-7명의 재상들이 토지와 인민을 탈점한다고 고발하였다. 당시 임견미와 염홍방의 전횡을 알고 있었던 우왕은 최영과 대책을 의논한 끝에 이들을 잡아들이게 하였다. 염홍방을 순군에 가두니 나라 안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여 임금을 칭송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전국에 찰방을 나누어 파견하여 임견미와 염홍방 등이 빼앗은 토지와 백성을 조사하여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였고, 전민변정도감을 두어 임견미 등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조사하고, 안무사를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 임견미의 가신과 惡奴 천여명을 베고 재산도 모두 몰수하였다. 마침내 염홍방은 자신과 자신의 가노의 횡포가 문제가 되어 죽임을 당하기에 이른다.

성리학자로서의 정치적 지향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염홍방은 유력자와의 인척관계를 매개로 권력의 핵심부에 도달하여 현실 정치를 좌우하였다. 그 과정에서 왕조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체제 확립을 위한 논리 개발이나 제도의 보수 같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체제 보수의 입장을 공유하고 긴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던 이색과의 정치적·사상적 협력 관계조차 유지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색에게 비판받고 절연되는 처지가 되었다. 염홍방이 개혁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권세가와 결탁하여 권력의 논리에 빠져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추구하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고려 말 성리학을 익히며 성리학 이념의 보급에 기여하고 성리학적 경제의식을 견지하였던 염홍방은 현실 권력과 타협하며 정치·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염홍방의 행적은 성리학을 수용한 유학자의 다양한 정치적 실천 가운데서 부정적인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 01. 공민왕 부부 초상, 화가미상, 조선, 81.5×65.5cm, 국립고궁박물관
- 02. 이색초상, 화가미상, 조선후기, 142.0×75.0cm
- 03. 전공민왕필 염제신 초상, 보물 제1097호, 53.7×42.1cm, 파주 염씨 광주종문회



찬란한 불교문화 -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

글 최예정·편집회원

불교의 나라 고려에서는 국가의 지원 아래 수많은 불사가 성행하였다. “나라를 통일한 것은 부처의 힘이니 불교를 장려하라.”는 태조 왕건의 유언에 따라 전국 곳곳에 사찰을 짓고 탑을 세우고 불상을 만드는 등, 지극한 불심이 나라를 안정시키는 근간이 되었다. 더불어 지방 호족 세력들도 일반 백성들과의 갈등을 없애고자 불교계에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민심안정을 위해 민간신앙과 결합하여 신평·풍수·도참 등을 불교와 접목하여 백성과의 소통을 꾀하였다. 그 예로 풍수가 그다지 좋지 않은 곳에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 절이나 탑을 세우기도 했다.

불교의 사상적 토양은 의천과 지눌에 의해 완성된다. 대각국사 의천은 교리와 실천수행을 병행하는 교관겸수(教觀兼修)를 주장,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보조국사 지눌은 불심을 먼저 깨닫고 점진적으로 수행하는 돈오점수(頓悟漸修)를 강조한 조계종을 창시하여 고려불교의 양대 축을 이루었다. 이렇게 거국적으로 불교가 융성하면서 연등회·팔관회 등 불교행사가 왕실 주체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정월 초에 열리는 연등회 때에는 수많은 등불을 밝히고 밤새도록 연등행렬을 하며 소원을 빌었다. 팔관회는 가을 추수 후 열리는 성대한 축제로 태조, 하늘의 신, 산, 용 등에 제사를 지내고 춤과 노래로 태평성대를 엄원했다. 또한 건축, 조각, 고려자기, 불경 간행 등 수많은 문화재를 제작하여 찬란한 고려문화를 꽃피웠다.



고려인이 만든 석탑에는 불심과 예술혼이 흠뻑 묻어났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고려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석탑이 있다. 경복궁 서편 고궁박물관 옆 너른 마당에 서 있는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이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은행나무 고목과 잿빛 탑이 심심하니 잘 어울린다. 먼 발치서 보아도 딱딱한 여느 탑과 달리 예쁘장하다 했는데, 가까이 다가가니 탑신 전체에 화려한 조각 장식이 그득하다. 국보 101호라고 적힌 표지석만으로도 이 탑의 위용과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금이 가고 조각이 깨져 있고 곳곳에 시멘트를 바른 흔적이 있다. 코끝이 찡한 날씨가 천년 세월의 풍파를 대변해 주는 것 같다.

원주 법천사지에 탑비와 함께 있었던 이 탑은 1912년 일본 오사카로 몰래 반출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1915년 되돌아와 경복궁 건춘문 앞에 세워졌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박살이 난 채 방치되었다가 1957년에야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만이천 조각이나 되는 파편들을 끌어 모아 제 모습을 찾아준 것이다. 용산박물관 이전 때 다른 유물들과 함께 옮기려고 했지만 해체시 재복원 여부가 불안정하여 홀로 남겨졌다. 그 굴곡진 역사가 무색하리만치 곱으로는 정말 아름답다.



지광국사의 사리를 모신 이 승탑은 6.1m나 되는 높이가 불탑 못지 않게 크고 화려하다. 우선 신라 때부터 이어온 8각원당의 모형에서 벗어나 사각형의 양식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한복처럼 직선이면서도 곡선이 한껏 도드라져 있다. 바닥돌 귀퉁이마다 용발톱 모양의 조각이 뻗쳐 탑을 사방에서 당기고 있는 듯하다. 기단은 층층마다 섬세하게 문양을 새겼다. 탑신처럼 큰 돌로 만든 중대석은 각 방면마다 두 개의 사각틀을 돈우어 운룡, 신선, 산경, 상여 나르는 모습들을 조각해 넣었다. 또 상대석은 가마 지붕 위에 늘어진 장막과 매듭을 세세히 형상화하였다.



이 탑의 얼굴은 사리를 봉안한 탑신이다. 앞뒤로 자물쇠가 달린 문을 달아 사리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양쪽으로는 이국풍의 창문을 달고 격자무늬로 주위를 둘러쌌다. 그 위로 지붕돌에는 가운데에 불상을 새기고, 네 귀퉁이에 날개를 펼친 봉황은 탑을 들어 하늘 위로 날아오를 것만 같다. 창문은 세련된 아치형으로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 탑은 사리를 운반하는 가마를 모델로 하였다고 한다. 『고려사』에 11세기 거란으로부터 왕과 왕세자가 타는 가마를 받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화려한 외래의 가마가 그대로 탑에 투영된 것이다. 큰 화강석 돌덩이에 빼곡하게 조각을 새겨서 화려하지만 어지럽지 않고 아기자기하면서도 웅장하다.

이 탑의 주인 지광국사 해린(984~1067)은 고려 현종에서 문종 대까지 여러 임금을 모시며 왕사, 국사에까지 오른 시대의 스승이다. 禪茶一如를 사상적 바탕으로 하는 법상종을 크게 펼쳤다. 그의 법음은 바다를 덮을 정도로 온 산하에 메아리쳤다고 한다. 해린은 법천사에서 처음 불교와 인연을 맺고 널리 법력을 펼친 후 은퇴하여 법천사에서 입적하였다. 입적할 당시 문종이 크게 슬퍼하여 특사를 보내 정중히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智光이라는 시호를 내린다. 玄妙라는 탑호를 지닌 이 탑의 규모와 화려한 장식은 그의 위상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당시 법천사가 있던 원주 흥호리에는 고려의 대표적 조세창인 흥원장이 있었다. 이곳은 한강과 섬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강원, 충청의 세곡을 개경으로 보내는 중간 경유지였다. 그만큼 물자가 풍부했다. 최첨단 형식의 탑을 법

천사에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물길이 개경과의 문화적 소통로 역할을 했기에 가능했다.

불교는 곧 고려인의 삶이다. 사찰은 종교활동과 더불어 경제활동의場이기도 하다. 불교용구와 행사에 쓰이는 물건을 만들고 기와를 사고 팔기도 한다. 농민들에게는 토지와 곡식을 빌려 주고 돈과 곡식으로 되받기도 한다. 숙박을 위한 院을 운영하고 나중에는 많은 노비와 토지를 소유하였다. 실생활에서는 살생을 금하고 채식과 차를 마시는 문화를 널리 보급하였다. 속속들이 불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탑신에 모셔진 사리함도 도난당하고 기단의 네 귀퉁이마다 놓여있던 사자상은 훗날 남겨진 채 한 개도 남아 있지 않다. 만이천 조각으로 부서지기 전의 개성 넘치고 화려했을 탑을 상상해 본다. 그 당시 탑을 쌓으며 분주했을 법천사는 또 얼마나 웅장했을까. 탑 하나에도 국제적인 예술성을 담을 줄 아는 고려인의 열린 감각이 조선에까지 지속됐다면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가지 않은 길을 또 한 번 돌아본다. 🌿

또 하나의 신앙, 도교



01

글 조애경·편집회원

종교관련 유물들을 보면 당시 생활과 사상에 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실에서 공손히 무릎을 꿇고 복숭아를 들고 있는 작은 인물상과 마주했다. 1971년 대구시 교외의 과수원에서 출토된 「청자도교인물모양주전자」[靑磁人物形注子]이다. 광택이 나는 담록색 상형청자로 국보 제167호이다. 고려시대하면 불교국가라는 공식 때문인지, 고려와 도교는 어딘지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도교는 노장사상과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영원불멸의 존재를 仙人, 神仙, 眞人이라고 부르며, 神藥이나 養生術을 통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를 위해 長生術을 수련하기도 했으며, 초월적 세계인 神仙境을 不死의 공간으로 삼았다.

청자인물형주자의 冠 윗부분에는 入水口가, 맨 앞쪽 복숭아에는 물이 흘러나오는 出水口가 뚫려있다. 인물의 등에 작은 고리 장식이 붙은 주전자 손잡이가 달려있다. 이 청자 도형은 누구를 묘사한 것일까? 첫 인상은 참 후덕해 보이는데 한참을 바라보고 있으니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 지긋이 다문 입매와 불거진 볼, 높고 뭉툭한 코, 부처를 닮은 콧볼 때 문일까. 유난히 크고 두툼한 손에 소복이 담긴 복숭아가 눈길을 끈다. 얼마나 지극한 정성이기에 저리 한가득 복숭아를 올렸을까. 머리에 쓴 관 정면에 금방이라도 날갯짓을 할 것 같은 새 한 마리가 있다. 새의 정수리에 벼슬과 같은 것이 있고, 양 날개를 펴고 긴 꼬리를 뒤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봉황으로 추정된다. 의복은 소매가 길게 늘어지고 옷깃과 옷고름, 주름과 문양으로 세세하게 장식 되어있다.

의복과 봉황 장식의 관, 그리고 복숭아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도교와 관련된 인물이나 전설 속의 西王母로 추측된다. 서왕모는 곤륜산 정상에 사는 도교의 대표적인 여자인신이다. 신선이 되는 방법 중 하나인 장생을 담당하는 만도(蟠桃:삼천년에 한 번 열린다는 신성한 복숭아)를 소유해 不老不死를 주관했다고 한다. 신선들에 대한 영향력이 커서 누구보다도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다. 중국 한무제에게 불로장생의 복숭아를 주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렇게 정교한 유물이 있다는 것은 도교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위의 주자 외에도 고려실에는 청자 병, 잔 등 도교 의례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유물들이 함께 전시되고 있다.

도교는 이미 삼국시대에 유입되었다. 당나라는 고구려에 道士를 파견하면서 神像인 天尊像을 보냈으며, 신라에도 도덕경과 신선사상이 퍼져 있었다. 불·도·유교는 고려의 건국이념에 기초역할을 했다. 그러나 교단으로서 체계를 갖춘 불교에 비해 무속적인 성격이 강한 도교는 주로 왕실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중요한 국가행사로 행해진 도교의례의 주관자인 국왕은 醮祭를 통해 上帝·天帝에게 기원하며, 자신이 천명을 받은 통치자임을 널리 알리 권위를 강화하려 했다.

초제란 천지와 국내의 산천, 그리고 별에 대해 지내는 도교의 제사를 말한다. 초제는 왕의 장수와 안녕을 위해 왕의 誕日과 三元日에 정기적으로 행해졌다. 上元·中元·下元을 삼원이라 하여, 각각 음력 1월·7월·10월 보름에 지냈다. 풍우의 순조로움과 풍년, 기우를 기원하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열리기도 했다. 고려 초부터 초제가 성행했는데 이는 최승로가 「시무 28조」에서 "우리 조정의 종묘·사직의 제사는 아직도 법식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데 산악의 제사와 도교의 초제는 번잡함이 도를 넘습니다."라고 비판한 것에서 그 사실을 찾아 볼 수 있다.

11세기 후반에 들어서, 도교는 새로운 이념으로 주목되기 시작한다. 『고려도경』에 따르면 "... 예종이 나라를 다스릴 때 늘 도가의 서적을 보급하는데 뜻을 두어 기필코 도교로 호교(불교)를 바꿔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무언가 때를 기다리는 듯 하였다."라고 전한다. 이는 그가 통치이념으로 사용하고 싶어 할 만큼 도교에 심취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최고신인 元始天尊을 숭배했고, 송나라에서 도교를 습득하여 온 李仲若의 요청에 의해 도교사원인 福元宮을 건립한다. 이로써 왕실 중심의 신앙이던 도교가 본격화·체계화 되었고, 敎團道敎의 단계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인종대에는 김부식 등 유학자들에 의해 유학이 강조되는 변화가 일어나 도교세력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초를 지낸 기록은 꾸준히 나타난다. 주춧돌이던 초제는 의종대에 와서 다시 빈번해져, 역대 왕 중 가장 많은 초제를 지내 상당한 국고 낭비를 초래한다. 도교는 예종에게는 하나의 정치 이념으로 활용된 반면, 의종에게는 자신의 구복 종교로만 인식되었다. 일종의 역할 변화인 셈이다. 공양왕대까지 고려왕조와 그 맥을 함께 하던 도교는 조선의 건국으로 급격하게 약화된다. 초제와 신사 등을 폐지하라는 상소가 올라오고, 곧이어 소격전과 태청관만을 남겨두고 모든 도교사원들이 폐쇄되고 만다. 중종 때 와서는 조광조의 강력한 건의에 의해 이마저 폐지되고 도교는 쇠락하게 되었다.





02



03

세모인 오늘밤은 경신일인데
모두들 삼시(三尸)의 일이 매우 신비롭다 하네.
눈 바로 떠 삼시충이 해안을 못 지나게 하라.
하늘이 가까워 옥황상제 계시니까.
밝으신 하느님은 그 벌레 보고 없어도 알리니
하루저녁 밤샘으로 지난 잘못 덮으려 하지 말라.

이색이 도교의 '守庚申' 풍습에 대해 쓴 시이다. 사람 몸속에 있는 三尸蟲이 庚申日 밤 그 사람이 자는 동안 몰래 하늘로 올라가 그의 악행을 옥황상제에게 고하게 되어 그의 생명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고 이를 막아야 했는데, 밤을 지새우기 위해 잔치를 열기도 했다. 왕실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널리 행해졌는데, 1년 중 매 경신일에 하던 것이 점차 줄어 연말 마지막 경신일을 철야축제행사로 지키게 되었다. 어렴풋이 어릴 적 설달그믐밤에 눈썹이 희어진다고 잠을 못 자게 하던 기억이 떠올러진다. 이런 풍습 또한 거슬러 올라가면 세모 경신일 풍습과 어떤 연결 고리가 있지 않을까.

서양종교가 밀려오면서 이제 도교의 흔적을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은제도금타출신선문향합」 같은 선인들이 남겨놓은 유물에서 신선의 유유자적하는 모습이나 이야기 속 인물에서 도교의 그림자를 찾아본다. 불로장생을 위한 장생술이 현대에 이르러 단전호흡이나 기체조, 단식 등의 방법으로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그나마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박물관에서 만난 도자인물이 고려시대 도교를 전해준다.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종교였다고... 🌿

- 01. 청자도교인물모양주전자, 국보 제167호, 높이 28.0cm, 국립중앙박물관
- 02. 은제도금타출신선문향합(바둑 두는 신선), 고려 13세기, 지름 5.6cm
- 03. 은제도금타출신선문향합(그림 감상하는 신선) 부분, 고려 13세기, 지름 5.6cm



흐름을 읽다

글 하영남·회원

현대 미술의 메카는 어디일까. 누구에게 물어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뉴욕은 현대 미술의 거점 도시가 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미국 미술 300년』이 기획 전시로 열리고 있다. 이런 저런 기회에 유명작가의 전시는 간간히 접했다. 그러나 건국초기에서 근대까지의 미술은 거의 본 적이 없다.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현대미술의 패권을 잡게 된 것일까? 이번에도 도도한 흐름을 엿볼 수 있으리라.

_ 전시는 연대기 순으로 여섯 개의 방에 펼쳐져 있다. 첫 전시실은 초상화가 주종을 이룬다. 카메라가 상용화되기 전까지 미술의 효용가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인물 사진 대신 초상화이다. 잔뜩 위엄을 부리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티가 난다. 초상화 속 인물의 의상도 유럽에 비하면 아직 소박한 정도이다. 자르르 윤기가 흐르는 벨벳이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공단 드레스를 입었지만, 검소하다 할 만큼 그들의 의상은 차분하다. 신생국이라 직물 생산이나 수입이 원활하지 못한 것인지, 화가의 붓질이 아직 원숙하지 못한 건지 알 수가 없다. 인물의 구도며 포즈도 좀 뻣뻣하다.

_ ‘동부에서 서부로’, 두 번째 전시실의 제목이다. 수많은 유럽인들이 고향을 떠난 이유는 미국이 ‘광활한 대지의 나라’였기 때문이리라. 그들의 눈에 비친 미국의 매력도 유감없이 표현되어 있다. 특히 1825년 결성된 ‘허드슨강 화파’는 눈부신 빛과 포근한 대기로 가득 찬 풍경화를 많이 그렸단다. 그러나 이 전시실에서 내 눈길을 끈 것은 원주민들의 모습이다. 『지나가는 길』에서는 자연의 지배자다운 당당함이 서려있지만, 『베짜는 사람』 속 인디언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다. 민속촌에 살



01

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처럼 관람자의 시각으로 표현된 그들인 것이다. 이 그림은 사실과 상상이 혼합되어 있다. 베틀의 위치와 의상이 실제와 다르고 미국 인디언 남자는 베를 짜지 않았단다. 화가는 사라지는 수공예의 전통이 안타까워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관람자에게는 이국적이면서도 묘한 향수를 불러 일으켰겠지만, 당사자인 원주민들은 이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전시 공간 한 켠에 있는 그들의 공예품을 보면 애잔함이 더해진다. 향아리와 직물의 문양이며 장신구의 빛깔이 은근히 현대적이다. 풍경화보다 이들의 공예품이 훨씬 세련된 감각을 자랑하고 있다. 원주민이 문화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어찌 지을 수가 있겠는가.

다음 전시실에는 19세기 미국의 풍속화가 펼쳐진다. 풍속화는 당시의 사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그러나 회화는 사진과 달리, 있는 그대로 보다는 의도된 연출이 대부분이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목적이 내포된 그림이다. 다양한 서사와 더불어 여러 상징적 의미가 숨어있다. 「건전한 만남」은 전원적인 풍경화 같지만 미국의 금주운동을 암시하고 있다. 술 대신 우유를 마시라는 권유와 더불어 강인한 여성상을 강조하는 작품이다. 전시실 산책을 하면서 맴돌았던 생각중 하나는 미국 미술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다. 미국에서 만든 작품인지, 미국을 소재로 한 그림인지, 미국인이 만든 작품인지. 그럼 미국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02

‘세계로 향한 미국’에서 그 의문이 제대로 발현되었다. 독립 100주년을 맞은 미국인들은 그동안 축적된 부로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생긴 것이다. 유럽 상류층이 이태리여행을 통해 예술적 감각을 익혔듯이, 미국 화가들이 당시 예술의 본거지인 파리로 모여 들었다. 그곳에 만연한 인상파 회화를 습득하기 시작했다. 파리의 여러 풍경과 인물상이 등장한다. 특히 모네가 말년을 보낸 지베르니에는 미국 미술가들이 단체로 모여 살았다고 한다. 이때 그려진 그림들도 미국미술일까? 이들은 왕성한 호기심과 적극적인 교류 덕분에 점점 국제적인 감각을 익혀 나간다. 「메리 윌슨」의 결의에 찬 표정은 이미 다음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듯하다. 하이백의 하얀 블라우스는 다소 답답해 보이지만 짙은 녹색 배경의 얼굴에 내린 턱선과 콧날 그리고 귓볼의 햇살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머리의 붉은 꽃은 그림에 생기를 주는 정점이다. 다니엘 가버가 딸을 그렸다는 「태니스」에서는 등뒤의 햇살이 몸을 관통해, 부유하는 아지랑이처럼 어롱댄다. 현대 미술의 핵심인 빛과 색이 미대륙에 제대로 상륙한 것이다.





미국의 근대는 훨씬 발달하다. 세계 미술사에 이름을 올린 작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조지아 오키프는 화보집으로만 보았을 때보다 훨씬 관능적이다. 자칫 촌스러울 수 있는 분홍 장미를 말 두개골과 대비시켜 죽음을 상징하는 바니타스 효과를 기막히게 연출했다. 삶의 덧없음을 이보다 절묘하게 표현 할 수 있을까. 「은색 탱크와 달」 앞에 서자, 김홍도의 「소림명월」이 떠올랐다. 두 작품 다 어딘지 모르게 스산한 달밤 풍경이다. 단원이 30년 먼저 적막한 가을 풍경을 그렸다면, 아서 도브는 도시 문명 속의 달을 그렸다. 한쪽에서는 시냇물 소리며 풀벌레 소리도 들리는데 비해, 은색 탱크는 사뭇 위협적이다. 도시의 적막강산이 더 외로워 보이는 이유는 뭘까. 군중속의 고독 같은 얼굴을 하고 달이 나를 내려 본다.

마지막 전시실에서는 낯익은 이름을 많이 만날 수 있다. 현대미술의 주 무대가 뉴욕임을 증명하는 셈이다. 대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니 좀 설레었다. 기대가 크면 실

망도 따르는 법인가. 잭슨 폴락은 너무 소품이었고 마크 로스코는 초기작이어서 살짝 아쉬웠다. 그러나 의외의 수확도 있었다. 앤디 워홀의 「재키」라는 작품에서 팝아트의 정수를 맛보았다. 대중문화 이미지를 조합해서 사회 전반이 공유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창출하는 기법을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고 할까. 또한 평면적인 형태와 색으로 일정한 객관성을 유지하는 미니멀리즘이 「다리의 그림자」라는 작품에 그대로 살아 있다. 현대 미술의 매력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으로는 「푸른 거석」을 들고 싶다. 바다 한 자락을 툇 떼어다 화폭에 담은 듯하다. 사방으로 흩어진 붓질에서는 강한 리듬감이, 짙은 푸른색에서는 끝모를 깊이감이 느껴진다. 출렁이는 물결과 심해의 호흡이 숨어있다. 이 역동성으로 현대 미술의 정상을 정복한 것이리라.

160여점의 작품으로 미국 미술을 어찌 다 간파하겠는가? 다만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였다. 이





09

론으로만 배웠던 다양한 사조를 직접 작품으로 만났다. 예술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다. 미국의 어떤 점이 현대 미술을 키우는 자양분이 된 것일까? 그 의문을 잡고 다시 전시실로 들어갔다. 아까는 보이지 않던 작품 한 점이 눈에 들어온다. 「흑인 선원」이다. 작가도 인물의 이름도 미상인 작품, 우리 같으면 기획 단계에서 제외시키지 않았을까. 여성과

어린이, 흑인 노예와 하층민, 원주민까지 온갖 계층의 인물과 삶이 눈에 들어온다. 현대미술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수도 없이 반복했을 것이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현대 미술을 꽃피운 원동력은 아닐까. 🌱

01. 계단문양 향아리, 주니족, 1880년경, 다색토기, 29.2×33.0cm, 휴스턴 미술관
02. 베 짜는 사람, 조지드포레스트 브러쉬, 1889년, 30.5×38.1cm, 테라 미국미술 재단
03. 건전한 만남, 원슬로 호머, 1874년, 51.8×76.5cm, 필라델피아 미술관
04. 분홍장미가 있는 말의 두개골, 조지아 오키프, 1931년, 101.6×76.2cm,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05. 매기윌슨, 프랭크 두베넥, 1898년, 38.1×30.5cm, 휴스턴 미술관
06. 태니스, 다니엘 가버, 1915년, 152.4×117.5cm, 필라델피아 미술관
07. 은색 탱크와 달, 아서 가필드 도브, 1930년, 71.6×45.9cm, 필라델피아 미술관
08. 疎林明月, 김홍도, 1796년, 보물 제 782호, 26.7×31.6cm, 호암미술관
09. 푸른거석, 한스 호프만, 1964년, 183.5×152.7cm, 휴스턴 미술관

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

휴스턴에서 한국 미술을 만나다

글 장송희·회원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나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시간을 보냈다. 짧은 해외 여행이 늘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 장기간 머물 수 있는 기회라서 얼씨구 하며 길을 나섰다. 휴스턴은 미국 남부의 대도시로서 곳곳에 아름다리 나무가 많았다. 오래된 백일홍이 정원수와 가로수로 많이 피었는데 우리와는 달리 연보라색, 분홍색, 흰색 등 색색이 꽃을 피우고 있어 반가웠다. 텍사스는 정유 회사가 많은 지역으로 부유한 재정 덕분에 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었다. 이번 여행은 미술관·자연사 박물관·도서관 방문과 주말 여행 등 다채로웠다.

매주 한 두 번은 휴스턴 미술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출근하는 딸과 함께 집을 나서서 미술관에 내리게 되면 우리 부부는 하루 종일 그곳을 관람하면서 즐겼다. 작품들을 감상하고, 스케치도 하고,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미술관 속의 극장에서 영화를 보았다. 특히 피카소·모네·세잔·렘브란트와 함께 시간을 보낼수 있어 행복했다. 서울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수업이 있는 날에는 전시실에 들러 유물을 보고 오듯이 휴스턴 미술관의 작품 하나 하나를 집중하여 보았다.

그곳에는 일본관과 중국관이 있는데 한국관이 없어 아쉬웠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관 설치 준비 중'이라는 팻말을 발견했다. 사실 한국관은 2007년 12월에 처음 개관 되었다고 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자매결연을 맺어 대여 받은 유물과 소장품, 한국 현대작가들의 작품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다 잠시 문을 닫고 전시실을 재정리한 후 재개관을 알리는 것이었다. 아무튼 반가웠다. 첫 개관 당시 한국관이 설립되기





까지의 과정과 참여한 분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교민들의 열의와 정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재개관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옆에는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달항아리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한국관 재개관을 알리고 있었다. 한국관은 미술관 안에서도 매우 좋은 위치에 있었다. 중앙홀에서 바로 왼쪽 방이어서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다. 나는 어떤 작품이 전시될지 궁금해졌다.

드디어 며칠 후 한국관이 열렸다. 꼭 나의 일인 것처럼 흥분되고 정말 기뻐다. 신라 가야 토기에는 아직 설명이 없었지만 곧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너무도 아름답고, 그윽하고 깊이 있는 우리 선조들의 혼이 깃든 미술품들이다. 편안하게 눈에 들어오는 눈앞의 전시품을 보고 나는 소리 없이 울려오는 감동을 느꼈다. 서울에서도 못 보았던 높이 30cm 정도의 반가사유상, 양증맞게 걸려 있는 금 귀걸이, 석조 불상, 고려 동종, 도자기들이 있었다. 현대 미술가의 작품으로 젊은 작가인 이불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남준, 그리고 노성대의 초록색 불상 등이 보였다. 유물과 현대 작품을 같이 전시하여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어 더 흥미로웠다.

한국관 전시는 우리 정신의 내면을 알리는 일이다. 내면이 우리 존재의 걸모습을 결정한다. 시간이 쌓이고, 정신이 쌓인 우리의 모습을 나는 휴스턴 미술관에서 만났다. 한국이 아닌 객지에서 만난 탓인지 나는 한국관 속에서 따뜻함과 자부심과 흐뭇함을 느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다. “감사합니다. 그 옛날의 장인, 오늘의 작가님들, 그리고 뒤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보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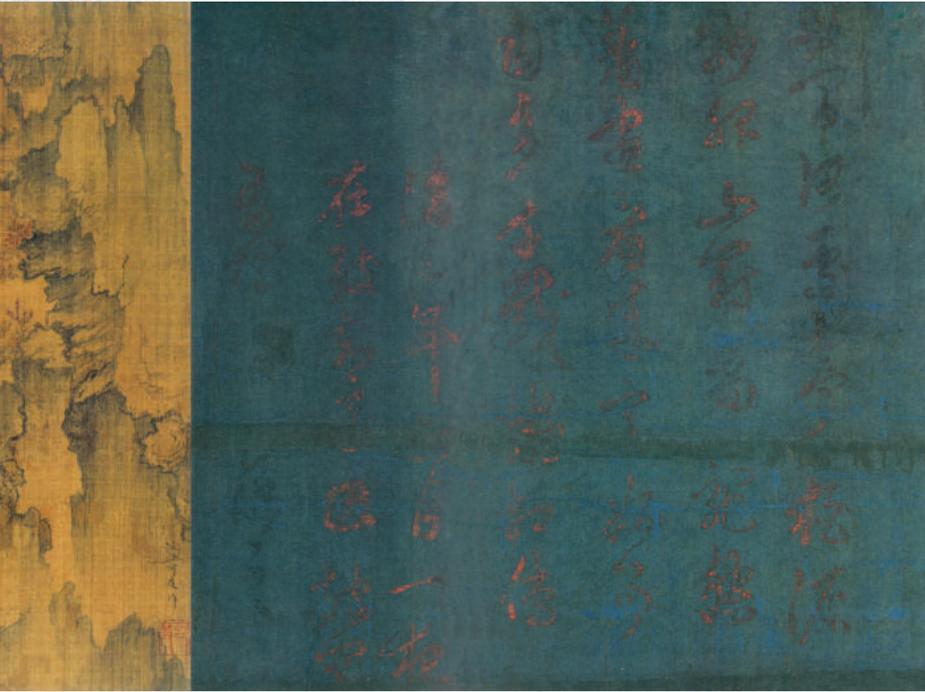
이상향을 꿈꾸며

글 金在雄·회원

박물관에서 특설강좌를 수강하면서 나는 뒤늦게 동경하던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학교 다닐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지만 동양화 쪽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2009년 9월에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그 유명한 몽유도원도를 보게 된 것이다.

현해탄을 건너온 安堅이 그린 「몽유도원도」를 보는 순간, 기대가 너무 큰 탓이었는지 답답하게 느껴졌다. 희미한 조명 아래 安平大君이 친필로 쓴 「夢遊桃源圖」를 제외하고는 칠언절구의 글자는 거의 보이지도 않고 그림 자체도 흐릿하여 내용을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연이어 붙어 있다는 21명의 찬문도 뚜렷하지 않았고, 일부는 접혀 있어서 읽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림이 탄생된 배경과 구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안건이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그렸기에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찬사를 받고 있는지가 궁금했다. 안건은 字가 可度(春秋左氏傳), 得守이며 號는 玄洞子, 朱耕 및 池谷이라 했다. 그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짐작만 할 뿐 자세히는 알 수 없다. 궁중 도화원(성종 때 도화서로 개칭)의 화원으로 모든 분야의 그림을 잘 그려 중 6품인 화원에서 정4품 護軍으로 올랐다. 그리고 안평대군으로부터 물심양면의 지원과 각별한 애호를 받았으며 그의 아들이 성종 때 병과에 합격하였다고 전한다. 안평대군 집에서 발생한 高價의 용매떡 관련 일화를 보면 그가 용의주도하고 대단히 처세에 밝은 사람이라는 정도만 읽을 수 있을 뿐이다

夢遊桃源圖



어느 날 안평대군은 꿈을 꾸고 난 후 안건을 불러 내용을 들려주고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그로부터 3일 만에 비단 폭에 그림을 완성하여 대군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그 후 안평은 이 그림에 집현전 학사 등 당대의 명가 21명으로부터 찬사와 찬문을 받았다. 그림은 왼 편에서 오른쪽으로 전개 되는 형식을 취해서 일반 그림들과는 다르다. 꿈에서 막 깨어났을 때 가장 인상에 남았던 무릉도원을 전면에 넣었다. 두루마리를 열 때마다 그 감동을 두고두고 간직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그림의 전개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그리는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 결과 안건은 대군의 꿈의 감동이 사그라지기 전 3일이란 짧은 시간에 대군이 가장 좋아했던 곽희파의 화법을 위주로 그림을 완성하여 그를 흡족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대각선 구도의 이 그림은 도연명의 무릉도원을 근거로 발전시켜 서술적인 방향으로 묘사하고 있다. 4폭 병풍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한 그림으로 나타내고자 하니 길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감동적인 도원 장면만 부각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축소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도원의 공간은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물매는 약 45도 정도의 급경사를 이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배가시킬 수 있으리라. 그러나 당시 사대부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은 현재와 많이 달랐을 것이다. 꿈에서 깬 후 도원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전 과정을 서술적으로 그려나가다 보니, 완만한 경사의 사선 구도가 되었을 것이다. 대신 중간에 기기묘묘하고 험한 바위들을 넣

고 3원법을 동원하여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구분하면서, 방향감·운동감·긴장감을 보충하고 있다. 또 험준한 바위산들을 중심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도원이 나오도록 하여 苦盡甘來 끝에 신분이 상승됨을 암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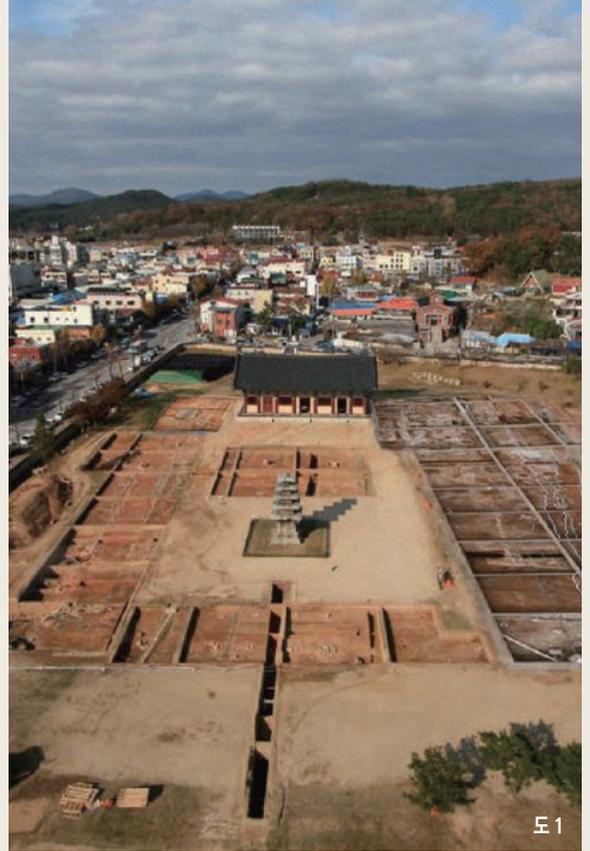
몽유도원도의 가장 핵심 부분인 도원은 偏頗 구도상 구심점에 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야기 내용 자체가 한 쪽에서 출발하여 또 다른 쪽에 도달하는 내용이므로 가운데 위치할 수는 없다. 대각선 구도의 구심점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비중 있게 그려져야 되는데 안건은 그 중심에 도원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고비인 기암절벽을 배치하여 도원에 도달하기가 참으로 어려움을 표현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 내용이 도교 및 성리학의 이상향인 무릉도원을 바깥에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그린 안건의 의도와 어떤 면에서는 연결되어 있다. 이 그림이 완성된 1447년에는 아직 세종의 통치하에 있어서 비교적 평온한 시기였다. 그러므로 도원은 평소에 사대부들이 갖고 있던 삶의 궁극적 가치와 이상의 실현을 위한 유토피아였다. 안건 자신도 처절한 현실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며, 유토피아를 마음껏 펼쳐보고 싶었을 것이다.

도연명의 『桃花源記』 이후로 도원은 신선이 사는 이상향인 비경으로, 또한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되어 왔으므로 그 안의 풍경을 그려내는 일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安中植의 「桃源問津圖」처럼 대부분의 무릉도

원 그림은 첩첩산중을 高遠法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몽유도원도에서 도원은 맞은 편 산에 가있어 안이 훤히 보이도록 俯瞰法으로 그렸다.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아마도 기존의 그림은 도원이 높고 깊은 산 어디엔가 있는 것으로 두루뭉술하게 그렸을 것이다. 안평대군은 평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가 자신이 꿈속에서 도원을 보고 '진정한 도원이란 이런 곳이다'라고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자신 있게 널리 알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 또 한가지 의문은 도원 속에서 함께 한 사람들(안평대군, 박팽년, 신숙주, 최항)을 그림 속에 넣지 않고 왜 도원을 빈 공간으로 두었을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혹 세종의 괜한 오해를 받고 싶지 않은 안평대군의 심리가 텅 빈 도원 속에 숨어 있다고 추론해 본다. 한편으로 '무릇 사대부는 그림을 그려 즐기더라도 그림에 빠져들지 않고, 사대부가 지향하는 성리학 최상의 가치인 道를 이루는 부차적인 餘技로서 회화를 바라본다'는 강희안의 생각에서 보듯이, 그 당시 상류층의 보편적인 회화관은 그런 인식 수준에 머물지 않았나 생각된다.

— 어쨌든 이 불후의 명작은 예술을 몹시 사랑한 명필 안평대군과 역대에 보기 드문 화가 안견, 이 두 사람이 합작한 작품으로, 우리 모두의 이상향으로 길이 남아 있다. 🌿



도 1

백제 정림사식가람배치의 전개와 일본의 초기사원

글 이병호·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I. 들어가며

한성시기의 불교 관련 유적·유물이나 문헌자료가 극히 부족하여 백제 불교의 384년 도래설이 부정된 적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이 더욱 더 지지를 받고 있다. 한성시기 백제사회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했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히 알 수 없다. 웅진시기가 되면 공주 무령왕릉이나 대통사지처럼 불교 관련 유적이나 유물이 급증한다. 하지만 대통사지에 대한 최근의 시굴조사에서는 가람배치와 관련된 유구가 검출되지 않아 그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백제사원의 가람배치에 관한 연구는 사비시기의 유적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사비시기는 『주서』 백제전에 “승려와 사원이 매우 많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많은 사원이 건립되었는데 부여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25개소 정도의 절터가 확인되었다. 그 중 백제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굴된 부여 군수리사지를 토대로 ‘군수리식가람배치’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비시기의 사원 가운데 가장 빠른 단계에 건립된 사원은 부여 정림사지라 할 수 있고, 최근의 재조사에서는 그 가람배치가 기존에 알려진 군수리식가람배치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도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비시기 백제사원의 가람배치를 ‘정림사식가람배치’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백제 가람배치의 원형과 특징 및 그 변천을 설명하고자 했다.



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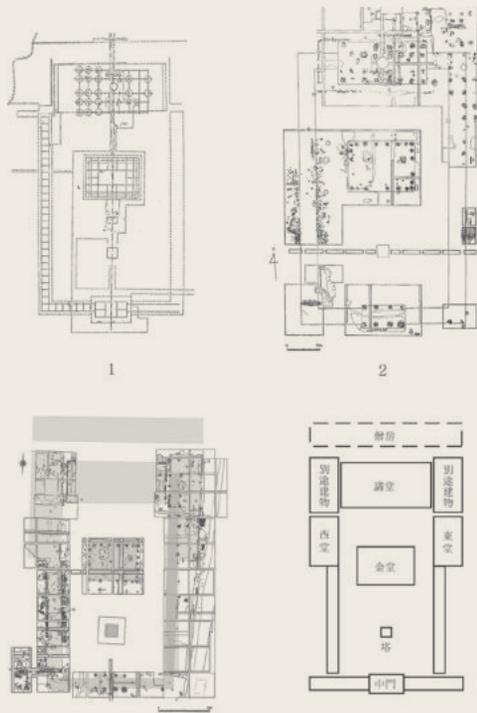
II. 부여 정림사지의 건립과 계통

(1) 소조상의 봉안장소와 제작시기

부여 정림사지에서는 서회랑지 남서쪽의 기와구덩이와 금당지 외곽에서 100여점 출토되었다(도2). 기존에 도용(陶甬)으로 소개된 이 소조상들은 크기에 따라 대형·중형·소형·정경소상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소조상들은 중국 남북조시대의 사원에서 발견된 소조상들이 목탑지에서 출토된 점과 백제 사비시기의 경우도 목탑지 부근에서 소조상이 발견되는 점 등에서 볼 때 일본 호류지 오중탑의 탑내소상(塔內塑像)과 같이 목탑의 초층 탑신을 장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소조상의 제작시기나 사원의 조영시기는 함께 발견된 중국제 청자편이나 농관을 쓴 인물상의 양식적인 특징 등에서 볼 때 사비 천도(538년) 전후였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541년 양 무제가 백제에 공장(工匠)·화사(畫師)와 같은 기술 공인을 파견한 기록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즉 성왕은 사비 천도 이후 국가적인 상징물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전문기술자를 양나라에 요청하였고 공장·화사 등은 이에 필요한 기술 자문이나 전수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6세기 중후반 백제에서 일본에 와박사(瓦博士) 등과 같은 전문기술자를 파견하는 것과 동일한 양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가람배치의 특징과 계통

부여 정림사지는 최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재조사가 이루어져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되었다. 그 최대의 성과는 강당과 동·서회랑의 연결이 북회랑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고, 강당 동서쪽에 독립된 별도건물이나 동서회랑 북단의 부속건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점이다. 즉 강당이 북회랑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동서 회랑지 북쪽에 소위 '부속건물'이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이다(도3). 이 발굴을 계기로 일제강점기에 발굴된 군수리사지와 동남리사지를 비롯하여 능산리사지, 왕흥사지, 제석사지 등에도 이와 유사한 배치를 가진 건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재인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성격에 대해서는 능산리사지에서 발견된 목간이나 미륵사지 등과의 비교를 통해 승방(僧房)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양식의 가람배치는 소조상을 비롯한 공반유물과 문헌기록을 통해 볼 때 사비 천도 이후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다만 정림사지에는 남조적인 문화 요소 이외에도 이중기단의 하성초석(下成礎石)이나 강당지 동서측의 별도건물지와 같은 고구려적인 요소도 확인된다. 따라서 정림사지는 남조문화를 위주로 하면서도 고구려 문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 3



도 4

III. 정림사식가람배치의 전개과정

부여 정림사에서 발견된 백제 특유의 가람배치와 구성은 멸망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비시기 백제의 가람배치는 ‘정림사식가람배치’가 원형이 어떤 것이고, 그 후의 전개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림사지의 경우 세 차례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파괴를 입어 그 직후에 건립된 능산리사지를 참고하여 프로토타입을 추출할 수 있다. 이 양식의 가람배치는 남문이 없는 상태에서 중문-탑-금당-강당이 일직선상에 배치되고 이를 회랑이 감싸는 형식을 말한다. 강당과 회랑의 연결방식은 회랑 북단의 부속건물이나 강당 동서쪽의 별도건물로 연결되는 형식이었다. 회랑 북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속건물은 금당보다는 격이 낮은 건물로 승방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침식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인 강당 북쪽의 승방보다는 좀 더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 ‘동당(東堂)·서당(西堂)’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밖에 동서회랑과 남회랑은 L자형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고 단절되었으며, 남회랑은 동서회랑 보다 좀 더 길게 돌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정림사식가람배치는 군수리사지나 왕흥사지가 건립되는 6세기 중후반 단계가 되면 외곽에 또 다른 건물이 증축되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신라 황룡사지 중건가람이나 일본 아스카데라(飛鳥寺) 삼금당과 같은 것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6세기말 이후에는 부속건물이나 별도건물, 강당과 같은 시설들이 생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미륵사지의 경우 기존의 동당과 서당이 강당지 남쪽의 동·서 승방지로 변형되고, 강당 동서쪽의 별도건물이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미륵사지의 삼원병렬식(三院並列式) 가람배치라고 하는 것도 정림사식가람배치를 토대로 한 백제 자체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의 수당대에 새로 등장하는 대형 원락식(院洛式) 사원의 영향이 있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V. 일본 초기 고대사원과의 비교

정림사식가람배치는 일본의 초기 고대사원 연구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중 오사카 시텐노지[四天王寺]의 경우 강당 동서쪽에 별도건물과 같은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하당(夏堂)과 동당(冬堂)으로 이루어진 강당의 경우 백제사원의 소위 1동 2실 건물지와 유사한 점이 있다. 또 신도하이치[新堂廢寺]와 카메이시[龜石] 고분의 관계는 고분과 사원이 결합된 좋은 사례로서 능산리사지와 능산리고분군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다(도4-1). 신도하이치의 동서 회랑에서 발견된 동방건물과 서방건물이라고 하는 것(도4-2)도 정림사식가람배치의 동당과 서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백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정림사식가람배치가 일본의 초기 고대사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점차 확인되고 있어

향후의 연구가 기대된다. 백제에서는 사비 천도 초기부터 멸망기까지 계속해서 정림사식가람배치가 건립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양식의 가람배치는 넓은 의미에서 ‘백제식가람배치’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V. 나오는 말

최근 부여와 익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백제사지에 관한 발굴에서는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유물과 유구, 편년 자료들이 실체를 드러내면서 국내외적으로 백제의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힘입어 가람배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당탑(堂塔)을 위주로 한 배치론에서 벗어나 점차 각 건물지의 기능이나 성격에 관한 문제로까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백제사원의 가람배치에 대해 ‘정림사식가람배치’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그 성립과정과 계통, 변화상 및 일본의 초기 고대사원과의 관계성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6~7세기 백제 사원이 남조문화나 고구려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내재화한 다음 이를 일본에 전파하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을 재확인하고, 고대 동아시아 문화교류에서 백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자로서의 큰 즐거움이었다. 🌱

도1 부여 정림사지의 재발굴조사 전경

도2 부여 정림사지에서 출토된 각종 소조상

도3 부여 정림사지의 가람배치(1. 藤澤一夫 작성, 2. 윤무병 작성, 3. 부여문화재연구소 작성, 4. 필자의 수정안)

도4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심사평

노중국 계명대학교 교수

본 논문은 사비도읍기 백제사원의 가람배치가 정림사 가람배치를 토대로 하였다는 전제하에서 정림사식 가람배치 개념을 설정하고 이러한 가람배치가 백제에서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이것이 왜에 전해져서 왜의 초기 사원 건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백제의 가람배치에 대한 문헌 자료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가람배치 문제는 고고학 발굴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토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본 논문은 백제 사원에 대한 발굴 자료와 중국의 고고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정림사 건립은 중국 남조의 사찰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정림사식가람배치의 특징을 왜의 초기 가람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오사카 사천왕사와 신당폐사 등 왜의 초기 가람은 정림사식가람배치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을 밝혔다.

본 논문은 중국-백제-왜로 연결되는 문화 교류의 성격과 의미를 가람배치를 중심으로 밝힌 것으로서 학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술상이란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전통문화와 박물관 학술연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1979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3명에게 학술연구비를 지급했다. 2006년에는 그 규모를 확대하여 용산이전과 더불어 박물관의 위상과 규모에 걸맞게 상금을 높였다. 천마상은 1천만원, 금관상은 5백만원, 은관상은 2백만원을 시상한다.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방국립박물관의 직원들이 응모할 수 있으며, 접수된 논문은 저명한 학자들에게 의뢰하여 심사하고 있다. 전통문화 연구와 관련 분야의 발전에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이 기여하고 있다.

| 2013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계획

	기획전	전시기간	전시소개	
	미국미술300년 Art Across America	2013-02-5 ~ 2013-05-19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대표적인 미국 회화, 공예품 168점	
	싱가포르의 혼합문화 페라나칸	2013-03-19 ~ 2013-05-19	페라나칸의 황금기인 19세기 말 20세기 초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 산하의 페라나칸 박물관 관의 소장품	
	강세황 - 예술로 꽃피운 조선 지식인의 삶	2013-06-11 ~ 2013-08-11	18세기에 활동한 문인화가 표암 강세황姜世晃(1713- 1791)의 탄신 3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특별전시	
	이슬람 문명의 미술	2013-07-02 ~ 2013-10-20	쿠웨이트 국립박물관(Dar al-Athar al-Islamiyyah)이 소장하고 있는 왕실 컬렉션인 알사바(al-Sabah) 이슬람 미술 컬렉션 중 355점	
	중앙아프리카의 예술, 광고강	2013-10-22 ~ 2014-01-19	국내에서 최초로 소개하는 콩고 사람들의 풍부하고 다양한 미술세계	
	한국의 도교 - 神과 仙의 문화	2013-12-10 ~ 2014-03-02	도교가 한국인의 삶과 문화에 끼친 영향과 그 특징을 주제 로 마련된 첫 번째 대형 전시	



2013 세계박물관연맹(WFFM) 서울 이사회 및 총회

WFFM 2013 Council Meeting and General Assembly

2013년 4월 22일 ~25일, 국립중앙박물관

세계 박물관의 결속 및 활성화를 위한 '2013 WFFM 이사회 및 총회'가 아시아 최초로 4월 22일부터 4일간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내 주요 박물관에서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과 ICOM한국위원회의 긴밀한 협조 하에 진행되는 이번 총회는 박물관 활성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수호자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하여 삼성미술관 리움, 호림아트센터, 화정박물관, 한국 가구박물관 등 국내 주요 박물관에서 만찬과 박물관 관람이 함께 진행되며, 창덕궁, 북촌한옥마을, 동구릉, 수원화성, 백남준 아트센터 등 다양한 문화탐방 프로그램이 준비 되어있다.

세계박물관회연맹(WFFM, World Federation of Friends of Museums)

전세계 30여개국 후원단체가 연합하여 결성한 비영리 단체로, 1975년 발족 후 박물관 후원회의 아이디어 교환, 문화유산 보존, 각 나라 박물관 후원자 증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UNESCO가 인정한 공식기구이며 2010년 ICOM과 MOU를 체결하였다.

한국박물관회연맹(KFFM, Korean Federation of Friends of Museums)

한국의 박물관 후원 단체가 모여 박물관의 발전 및 후원인, 후원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09년부터 세계박물관회연맹(WFFM)에 정회원으로 참여하여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지역 박물관 후원단체의 결속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wffm2013seoul.com

문의 02. 2077. 9793

주최

한국박물관회연맹
Korean Federation of Friends of Museums

주관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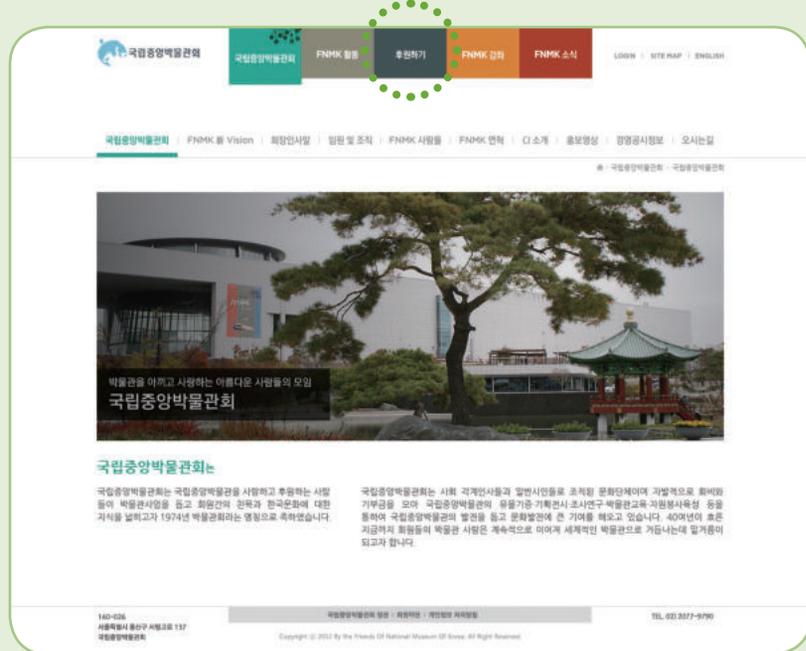
후원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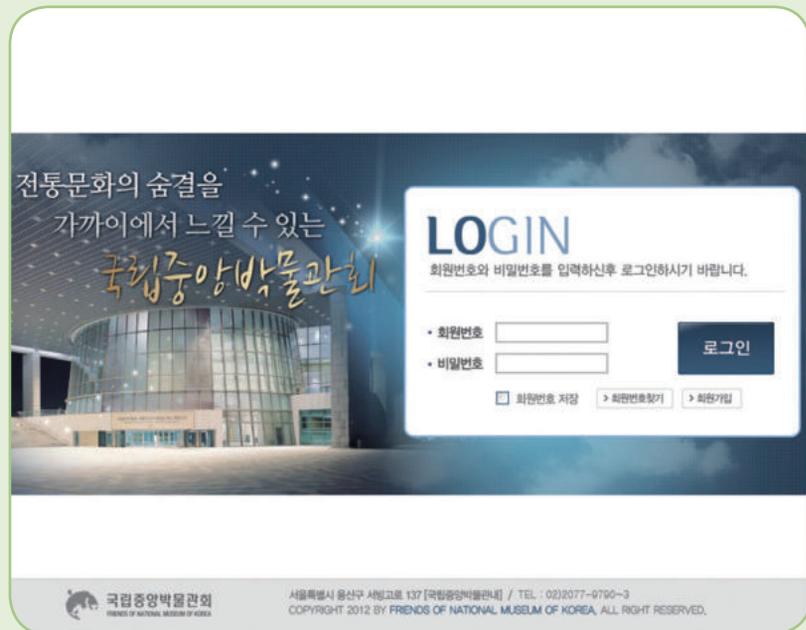
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THE KOREAN NATIONAL COMMITTEE

국립중앙박물관회 후원하기 안내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보다 손쉬운 참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 홈페이지 www.fnmk.org 로 접속 화면상단 후원하기 클릭



문화의 힘으로 국격을 높이는 일,
인류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후대에 전하는 일,
그 뒤에는 문화예술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鎮肅, 金榮秀, 兪相玉, 柳昌宗 회장을 거쳐 2011년 11월 金正泰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金正泰
副 會 長 | 申聖秀 洪錫肇
理 事 | 金英那 金信韓 金斗植 南秀淨
朴殷寬 尹碩敏 尹在倫 李健茂
李圭植 許榕秀 洪政旭 禹燦奎
監 事 | 金義炯 金敎台
事務局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원, 청룡 오십억원, 백호 삼십억원, 주작 십억원, 현무 오억원, 천마 일억원, 금관 오천만원, 은관 삼천만원, 청자 일천만원, 백자 오백만원, 수정 이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천마회원

하나은행 金正泰
千信一 세종옛돌박물관장
孫昌根 소장가
尹章燮 호림박물관 이사장
SK에너지 申憲澈
尹碩敏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금관회원

兪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팬택&큐리텔 朴炳燁
(주)한섬 鄭在鳳
(주)STX 姜德壽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鄭明勳 서울시향 고문
權俊一, 具在善 Actium 부회장
庚園 광제사 주지
鄭溶鎭 신세계 부회장
都炳泰 갤러리현대 부사장
朴殷寬 (주)시문스 회장
申聖秀 고려산업(주) 회장
洪錫肇 (주)BGF리테일 회장
李垞炅 프라이머 대표

은관회원

柳昌宗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金鍾漢 (주)종합전기대표
成弼鎬 광성기업대표
徐載亮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柳芳熙 (주)풍산주택회장
南秀淨 (주)썬앳푸드 대표
許榕秀 GS에너지(주) 부사장
金寧明 (재)에을 이사
趙顯相 효성그룹 부사장
최철원 M&M(주) 사장

洪政旭
金信韓
金承謙
李明姬
姜院基
李圭植
尹在倫

청자회원

金芝延 (주)컨셉 대표
申硯均 아름지기 이사장
朴仙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田永采 한길봉사회 이사장
金永斌 김&장 법률사무소
玄明官 일진홀딩스(주) 대표
許正錫 OCI 부사장
李宇鉉 스무디킹코리아(주) 대표이사
金性完 수원대학교 이사장
李仁洙 2014아시아게임조직위원장
金榮秀 호성공업회장
胡鍾一 성암고서박물관장
趙炳舜 단산문화재단 이사장
慎昌宰 남양유업 전문위원
李雲卿 제일화재 이사장
金英惠 삼표산업
李美淑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鄭在昊 열화당 대표
李起雄 법무법인 세종 대표
辛永茂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辛炳讚 성곡미술관 이사
朴載蓮
李鈴子
朴海春
金宗學
한국도로공사
玄智皓
金南延
金寧慈
金正宙
梁汰會
丁恩美
鄭義直
崔惠玉
洪誠杓
崔世勳
朴世昌
崔杜準
李海珍
金澤辰
李善眞
洋賢財團
薛允碩
李英純
朴正遠
李教祥
金載烈
金仁順
梁洪碩
朴禎原
朴知原
曹在顯
曹榮美
金世淵

(주)헤럴드 회장
대성 부사장
(주)서릉통상 부사장
일우재단 이사장
오리온 대표
경신금융 대표
서울대학교 교수

(주)컨셉 대표
아름지기 이사장
용인대학교 부총장
한길봉사회 이사장
김&장 법률사무소
일진홀딩스(주) 대표
OCI 부사장
스무디킹코리아(주) 대표이사
수원대학교 이사장
2014아시아게임조직위원장
호성공업회장
성암고서박물관장
단산문화재단 이사장
남양유업 전문위원
제일화재 이사장
삼표산업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열화당 대표
법무법인 세종 대표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성곡미술관 이사

서양화가
柳徹浩
(주)화승 부회장
동훈디앤아이 대표
(재)에을 이사장
(주)NXG 대표이사
(주)비상교육 대표
종로편입아카데미 대표
현대자동차 부회장
회원·자원봉사
고려상사(주) 부회장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금호타이어 부사장
(주)동남유화 사장
NHN(주) 이사회위원장
(주)엔씨소프트 대표
목금도갤러리 관장
대한전선 사장
한국미술협회회원
재미교포
서울가든호텔 부사장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한국고미술자거연구소
대신증권(주) 부사장
두산산업차량(주) 대표이사 부사장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경기도 문화의전당 이사장
(주)KPE 전무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金兌炫
Joseph Bae
具本商
朴善正
金裕錫
咸泳俊
金載勳
高基瑛
尹賢慶
韓榮宰
崔仁善
吳勝敏
許允秀
兪承熹
李幸旭
李萬圭
趙希卿
朴宣注
尹寬
林鍾勳
柳智勳
李濬宇
楊仁集
尹勝鉉
吳治勳
李學俊
李芝衡
金性南
金英姬
金京姬
韓惠舟
柳英芝
李胤基
崔再源
李甲宰
姜承模
全裁範
金斗植
成來恩
張升準
李宇成
許允烘
張仁宇
朴廷彬
具本赫
禹燦奎
徐東姪
金敎台
宋哲
千碩圭
金萬玉
金東官
洪正國
陳在旭
崔正勳
崔雄善
朴璟鎭
洪正道
沈宗玄

성신양회(주) 수석 부사장
KKR Asia 대표
LIG 넥스원(주) 부회장
대선제분(주) 상무
행남자기 대표이사
(주)오뚜기 회장
영풍제약 부사장
(주)금비 사장
동화약품 이사
노루홀딩스 회장
회원
동일산업(주) 부사장
(주)ALTO·(주)ALTEK 부사장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부관장
(주)대주기공 사장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광주요그룹 이사
영은미술관 관장
BlueRun Ventures 대표
한미IT(주) 대표이사
영남제분 부사장
홍아해운 상무
진로재팬 대표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대한제강 부사장
서울옥션 대표
대법원법원행정처 판사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강좌 수료생
(주)피오나조경 대표이사
화정박물관 관장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그랜드힐튼호텔 사장
SK부회장
삼일회계법인 전무
한국석유그룹 사장
금강공업 부사장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영원무역 이사
매경미디어그룹 전무이사
이테크건설 상무
GS건설 상무
선일자동차 대표이사
신원 부회장
LS-Nikko 동계련 상무
학교재 대표
회원
삼정회계법인 대표
성문출판사 대표
천일식품 대표
회원
한화솔라원 기획실장
(주)BGF리테일 이사
하나UBS 운영대표
대보건설(주) 전략기획실장
(주)인팩 대표
(주)진주햄 대표이사 부사장
JTBC 부사장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